

## 史書에 기록된 신라·백제의 다리

이덕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dsrhee@cerik.re.kr

### 5세기 초, 신라의 평양주대교

한반도 고대 역사 기록들에서 도로 및 다리와 관련된 기사는 매우 드문 편이다. 특히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의 다리 관련 기록은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건국 설화의 어별부교(魚鱉浮橋) 이후 450년이 지난 413년이 되어서야 다시 나타난다. 즉, 〈新羅本紀(신라본기)〉 실성이사금(實聖尼師金) 12년 추팔월(秋八月)의 “평양주의 대교를 새로 완성하였다(新城平壤州大橋)”는 기사가 그것이다. 한반도에 다리가 건설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다. 평양주가 어디인지, 다리의 형태는 어떤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三國遺事(삼국유사)」의 ‘恐南平壤也今楊州(공남평양야금양주)’라는 기록을 근거로 실성이사금 당시의 남평양(南平壤)을 지금의 경기도 양주(楊州)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여러

정황상 그 신빙성은 매우 낮다. 어쨌든, 큰 다리로 구분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다리가 가설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거니와 우리 정사(正史)에 ‘대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는 의미도 작지 않다.

이 외, 신라시대의 다리로는 송교(松橋), 귀교(鬼橋), 유교(楡橋)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온다. 먼저, 「삼국유사」〈阿道基羅(아도기라)〉 조에는 금교(金橋)라는 다리 이름이 나타난다. 이 기록은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 아도화상의 어머니가 19살의 아들 아도에게 “그 나라(신라) 도읍에는 일곱 곳의 가람 터가 있는데 그 첫째가 금교 동쪽 천경림이다(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一日金橋東天鏡林)…”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천경림은 흥륜사(興輪寺)라고 주해했으며, 금교에 대해서는 “서천의 다리를 일컫는바 세속에

서는 송교라고도 한다(金橋謂西川之橋俗訛呼云松橋也)”는 설명을 곁들였다. 송교라는 단 이름은 아마도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그런데 문헌에 따라 아도화상이 신라에 머문 시기가 미추왕(味鄒王), 눌지왕(訥祗王), 소지왕(炤知王) 등으로 차이가 난다. 만약 3세기 후반의 미추왕 재위 기간이라면 송교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평양주대교보다도 훨씬 앞서 존재했음이 기록된 다리가 된다. 그러나, 제반 정황상 아도화상이 미추왕 연간에 머물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송교는 눌지왕과 소지왕이 재위했던 5세기 후반에 존재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다리가 된다.

이어, 귀교 이야기는 「삼국유사」〈桃花女(도화녀)鼻荊郎(비형랑)〉조에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 왕이 비형랑을 불러서 물었다(王召鼻荊曰). “네가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는 게 사실이냐(汝領鬼遊信乎)?” 비형랑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荊曰然).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혹은 신중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틀렸고, 황천 동쪽 깊은 개울이라고도 한다) 북쪽 개울에 다리를 놓도록 하라”고 하였다(王曰然則汝使鬼衆成橋於神元寺北渠(一作神衆寺誤一云荒川東深渠)). 비형이 어명을 받들어 귀신들에게 돌을 다듬게 하여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荊奉勅使其徒鍊石成大橋於一夜).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라 하였다(故名鬼橋). 〈하략〉….’

이 기록에서 왕은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

이며, 비형은 제25대 진지왕(眞智王)의 혼백과 사랑부(沙梁部) 여인 도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비형이 다리를 놓았던 때는 6세기 말 진평왕 재위 17년(597)으로 집사(執事) 벼슬을 하던 비형의 나이는 15세였다. 「삼국유사」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귀신다리 귀교는 규모가 큰 ‘대교’였으며, 돌을 다듬어 세운 ‘석교(石橋)’였다. 그럴진대 귀교는 다리의 주자재가 석재였음이 기록으로 밝혀진 최초의 다리가 된다.

그렇다면 귀교는 전설 속의 다리였을까? 그렇지 않다. 조선 초 성종 연간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신원사 옆에 있다(在神元寺傍)”고 기록한바 적어도 조선 초 15세기 중후반까지는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언제 어떻게 다리가 훼손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발굴 조사를 통해 그 위치가 드러났다. 경주 탑동의 오릉(五陵) 북쪽에 있는 콘크리트 교량 문천교 하류 100m 지점에서 적잖은 석재 유구(遺構)들이 발굴된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곳을 옛 귀교 터로 추정하였다. 지난 2000년 4월 18일자 「영남일보」에서는 귀교 발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설로만 여겨져 오던 귀교(鬼橋)가 경주시 황남동 오릉 북쪽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유구는 길이 25m, 너비 2.5m, 높이 1.8m 규모로 남북으로 10여 개의 교각이 설치돼 있으며 명에보와 세로보 각각 30개와 교량을 덮었던 판석 75개도 발견됐다. 또 교각을 지탱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자갈 등을 채워 다져놓은 직경 50cm 내외의 원형과 네모형의 초석 106개도 발견돼 상

당히 큰 규모의 교량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1997년 오·하수 배수관로 매설 작업 중 일부 석조 유물이 노출되면서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일대 800여 평에 대해 작업을 벌이게 됐다. 경주문화재연구소측은 “출토된 교량 부재용 석재가 500여m 동쪽에 위치한 월정교 석재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귀교가 상당히 정성을 들여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향토 사학계에서는 그동안 막연히 남천과 서천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량으로 산재한 자연석을 귀교의 부재로 추정하고 귀교를 자연석을 이용한 소규모 다리 정도로 여겨왔다. <하략>...

한편, 문천(蚊川) 월정교(月精橋)에서 하류 쪽으로 19m 지점에서 나무다리 교각의 기초가 발견되었는데, 학계에서는 이곳을 통일 이전 신라시대에 있었던 다리 문천교(蚊川橋) 터로 보고 있다. 문천교 터는 월정교 터 발굴 조사 당시 8개의 목조 가구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문천교의 판 이름은 유교(楡橋)인데 이는 다리의 주자재가 느릅나무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발굴 당시 수집된 나무 조각은 잣나무였다. 따라서, 후대 어느 때인가 잣나무로 수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다리는 8세기 초 통일 신라시대에 월정교와 춘양교(春陽橋)를 축조하기 이전까지 왕궁이던 월성(月城)과 남산을 오가던 주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천교는 「삼국유사」(元曉不羈(원효불기)) 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는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와 설총의 사연을 담고 있다.

‘... 어느 날 대사가 일찍이 상례에 없던 행동을 하며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師嘗一日風顛唱歌云).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誰許沒柯斧) /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보려네(我斫支天柱).”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태종 무열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人皆未喻時太宗聞之曰), “이 대사가 귀한 부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此師殆欲得貴婦產賢子之謂爾).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그 이로움이 막대할 것이다(國有大賢利莫大焉)”라고 하였다. 그때 요석궁에는 과부 공주가 있었다(時瑤石宮有寡公主). 왕은 궁리에게 원효를 불러오도록 시켰다(勅宮吏覓曉引入). 궁리가 어명을 받들어 원효를 찾아보니 원효는 이미 남산을 거쳐 문천교(사천인데 세속에서는 연천, 모천 또는 문천이라고 하며, 다리 이름을 유교라고도 한다)를 지나고 있었다(宮吏奉勅將求之已自南山來過蚊川橋(沙川俗云年牟川又蚊川又橋名楡橋也)過之). 궁리를 만나자 원효는 일부러 물속에 빠져 옷을 적셨다(佯墮水中濕衣袴). 궁리는 원효를 요석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며 그곳에 묵어가도록 하였다(吏引師於宮褫衣曬眼因留宿焉). 공주는 과연 태기가 있더니 설총을 낳았다(公主果有娠生薛聰). 설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롭고 영민하여 경서와 사서에 널리 통달하였으니 신라 10현 중 한 사람이다(聰生有睿敏博通經史新羅十賢中一也). <하략>...

이처럼 원효가 요석공주와 사랑을 나누었던 때

가 4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온다. 원효는 617년(진평왕 39) 생이었으므로, 문천교는 늦어도 7세기 중반 즉, 660년대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백제, 498년에 '웅진교를 세우다'

백제의 다리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百濟本紀(백제본기)〉 동성왕(東城王) 조 20년(498)의 “웅진교를 가설하였다(設熊津橋)”는 기사가 전부이다. 백제는 문주왕(文周王) 1년(475) 10월에 한성(漢城)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바, 웅진교는 신도읍을 개발하면서 건설된 다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웅진이 지금의 공주(公州) 일대라는 것 외에는 다리가 가설된 정확한 위치를 비롯한 그 어떤 제원(諸元)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막연하게나마 금강을 건너던 다리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기록은 빈약하지만 백제 역시 크고 작은 수많은 다리들을 가설했음이 당연하겠거니와, 최근 들어 절터 등의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유구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먼저, 1990년대에 걸쳐 부여(夫餘) 능산리 절터를 발굴한 결과 절터를 둘러싼 배수로에서 자그마한 나무다리 둘과 돌다리 하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능산리 절은 창왕(昌王)이 재위했던 567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益山)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도 교량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한토목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토목사」(2001년 11월)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학회에서는 미륵사 경내의 자그마한 연못을 건너던 이 다리가 누교(樓

橋)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륵사는 7세기 전반에 재위했던 무왕(武王)이 건립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백제의 교량 유구(遺構)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바 있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교량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이 발굴에서 교량 구조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익산 미륵사지 강당지(講堂址) 중심축선상에서 북측 건물지인 승방지(僧房址)와 금당(金堂) 건물지 간의 연지(蓮池)를 건너가는 통로상의 교량으로 교각은 4개소, 건물 기단을 교대(橋臺)로 삼아 원형 지대석 위에 원통형의 초석과 같은 장주형(長柱形) 교각이 남아 있다. 교량의 규모는 교각 간격 2.8m, 폭 2.8m, 총길이 14m에 이르는 회랑(回廊)식 교량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日本書紀(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었던 스이코텐노(推古天皇) 20년(612)에 백제에서 건너가 귀화한 노자공(路子工) 시고마로(芝耆摩呂)가 왕궁 남쪽 정원에 수미산(須彌山) 모형을 만들고 구레하시(吳橋, 오교)를 세웠다고 한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믿는 상상 속의 산을 일컫고, 오교는 지붕과 난간이 있는 다리였다고 한다. 시고마로가 수미산을 꾸미고 오교를 세운 때는 백제 무왕 재위 13년의 일이다. 그렇다면 7세기 초반 이전부터 이미 백제의 정원 수준 및 교량 축조 기술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CERIK